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
Predictors of Post-Divorce Adjustment*
- Among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권 소 영
교 수 옥 선 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won, So Young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변수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life-changes after divorce, individual resources, and interpersonal resources affect post-divorce adjustment. Especially it focuses on gender differences.

Data were collected from 114 divorced men and 112 divorc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ith the inclusion criteria of 1) having been divorced for at least 6 months but less than 5 years, and 2) not having remarried after divorce. All divorced men and women were interviewed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analysis included frequencies, means, t-test, crosstab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Divorced women were better adjusted than divorced men. 2) Financial satisfaction and health problems were important factors for both divorced men and women. 3)

Corresponding Author: So Young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70 Fax: 82-2-880-8770 E-mail: beauty2@sn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 21 신규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연구는 두뇌한국 21 신규사업 과제인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적응과정-아동, 청소년, 이혼남녀의 적응 지원 방안 모색-"의 일부임.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that affected post-divorce adjustment. Social support and significant others' attitude toward divorce influenced post-divorce adjustment for divorced men. For divorced women, negative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their own attitude toward divorce and divorce initiation found significant.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post-divorce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program for supporting divorced men and women should consider gender differences.

주제어(Key Words): 이혼 후 적응(divorce adjustment), 이혼 남녀(divorced men and women), 이혼 후 생활변화(life-changes after divorce), 개인적 자원(individual resources), 대인관계 자원(interpersonal resources)

1. 문제제기

이혼은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개인의 삶에 단절과 새로운 적응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와 부모 등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별 가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당수 이혼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와 위기 상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이후 개인의 삶과 개별가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혼은 여전히 힘든 사건이며, 이혼자들은 총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박경애, 1999; 박부진, 2000; 한경혜, 1993b; Hu & Goldman, 1990; Kitson & Morgan, 1990; Thoits, 1983). 따라서 이혼 후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응과정을 규명하여 이혼자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혼의 과정에서나 이혼 후의 생활에서 남녀가 겪는 경험이 같지 않으므로(이재경, 2000; 한경혜, 1993a; Crane, Soderquist, & Gardner, 1995) 이혼 후

적응 양상이나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혼 후 적응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를 파악하고, 적응전략을 성별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에 관한 스트레스 이론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Amato(2000)의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20, 30대 이혼 남녀로 한정하였는데, 20, 30대 이혼은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 30대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혼과 관련된 변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대상자에게 관련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연구대상자 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이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 30대 이혼 남녀가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

여 복지정책 수립과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변수고찰

1. 이혼 후 적응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며,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깨지는 경험이다. 따라서 이혼 후 개인은 배우자의 상실에 적응해야 하며, 역할관계를 재정립하고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김득성, 2002; DeGarmo & Kitson, 1996; Kitson, 1992).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예전에는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와 접촉을 완전히 끊는 단계가 되면 이를 적응이라고 하였으나(한경혜, 1993a), 이제는 이혼 후 적응을 하나의 단절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이혼 후 적응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독립된 정체감 확립과 적절한 역할수행능력 획득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Kitson, 1992; Kitson & Morgan, 1990; Kitson & Raschke, 1981). Kitson과 Raschke(1981)는 이혼 후 적응을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나 전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독립적 정체감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Kitson과 Morgan(1990)은 이혼 후 적응을 심리적, 정신적 질병의 증후가 없고 가정, 직장, 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며, 이전의 결혼이나 전 배우자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후 Kitson(1992)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장애가 없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전의 결혼이나 전 배우자에 얽매이지 않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혼 후 적응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이 상실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과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여러 학자들(Kitson & Raschke, 1981; Kitson & Morgan, 1990;

Kitson, 1992)의 정의 중 이전의 결혼이나 전 배우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혼 후 적응을 이혼과 관련된 상실감을 이겨내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이전의 결혼이나 전 배우자에 구속되지 않고 이혼 결정과 이혼 후 생활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The Divorce-Stress-Adjustment Perspective)

많은 연구들은 이혼이 적응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생활 전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각각 다른 관점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스트레스 이론과 연결되고 있다.

최근 Amato(2000)는 각각의 연구에서 발견된 가정들을 통합하고, 스트레스 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The Divorce-Stress-Adjustment Perspective)을 제시하였다.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에서는 불행했던 결혼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이혼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혼 이후에 개인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며, 이렇게 이혼 후 수반되는 새로운 사건과 과정들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결과들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중재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크게 스트레스원과 중재요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 이후 개인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하락, 거주지의 이동, 사회적 관계의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활의 변화는 개인들의 심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부적응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한내창, 1998; Kitson, 1992; Miller, Smerglia, Gaudet & Kitson, 1998; Wang & Amato, 2000). 즉, 이혼으로 인한 생활조건, 경제적 지위의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의 변화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해 이혼을 경험한 개인의 적응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요인은 이혼 후 생활변화라는 스트레스원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며, 중재요인에 따라 개인의 이혼 후 적응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인관계에서의 자원은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자원과 대인관계 자원은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자존감, 소득과 취업 등의 개인적 자원들은 개인이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Booth & Amato, 1991; Cohen & Savaya, 2003; Kitson & Morgan, 1990). 또한 개인이 이혼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인지적인 측면의 개인적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혼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혼 과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고 지각하는지는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Baum, 2003; Booth & Amato, 1991; Diedrick, 1991; Simon & Marcussen, 1999). 대인관계에서의 자원은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또 다른 중재요인이다. 특히,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자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등은 결혼의 해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줄여주어 이혼 후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문현숙, 김득성, 2000; 변화순, 1996; 성정현, 1998; 허정원, 옥선화, 1998; Thabes, 1997; Tschann, Johnston & Wallerstein, 1989; Wang & Amato, 200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에 기초하여 스트레스원은 이혼 후 생활변화, 중재요인은 개인적 자원과 대인관계 자원으로 크게 범주화하여 각각이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이혼 후 생활변화

1) 거주지 이동 여부

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의 하나로 거주지 이동을 들 수 있다.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는 집세를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상태에 있는 여성

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Lanahan & Sandefur, 1994, Wang & Amato, 200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 후 많은 이혼 남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거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다(옥선화, 성미애, 2004).

거주지의 이동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역할 정체감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장기적인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Magdol, 2002). 또한 이혼으로 인한 거주지의 변화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Sweeney & Horwitz, 200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거주지의 이동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남녀가 경험하는 생활변화의 하나로 거주지 이동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생활 악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Holden & Smock, 1991; Smock, 1993, 1994). 이혼 여성들의 빈곤문제는 새로운 빈곤층으로서의 여성 또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 여성이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혼 이후의 실제적인 삶을 규제, 통제하는 주요 요인이다(성정현, 1998). 또한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Holden & Smock, 1991).

이에 반해 남성들은 이혼 이후 오히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거나, 남성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그 수준이 여성과 비교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 Hoffmen, 1985, Booth & Amato, 1991에서 재인용; Fowers, 1991; Holden & Smock, 1991; Peterson, 1996; Weitzman, 1985, Peterson,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들어 이혼 후 남성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Mcmanus & Diprete, 2001). 즉, 여성의 가구 소득 기여도가 높아지고, 남성의 자녀 양육비, 생활비 지원이 증대되면서 대다수의 이혼한 남성들 또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경제적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이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따라서 경제생활의 악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건강 악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혼을 경험한 개인은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사망의 위험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Hemström, 1996; Lillard & Waite, 1995; Zick & Smith, 1991). 이혼으로 인해 개인은 음주나 흡연과 같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 더 심각하다(Magura & Shapiro, 1988; Zick & Smith, 1991).

한편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특별한 기술이 없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게 건강의 악화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김혜련, 1995). 따라서 건강이 악화된 여성들은 이혼 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건강의 악화는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개인적 자원

1)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많다(Booth & Amato, 1991; Cohen & Savaya, 2003; Kitson & Morgan, 1990). 교육수준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혼 후 적응 수준을 높인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므로 이혼 후 더 잘 적응한다(Booth & Amato, 1991; Kitson & Morgan, 1990; Ross & Wu, 1995; Wang & Amato, 2000).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인지적 대처반응을 하고, 문제해결 기술이 더 뛰어나며, 생활전반에 대해 강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Booth & Amato, 1991; Wang & Amato, 2000).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후 더 잘 적응한다(Booth & Amato, 1991; Kitson & Morgan, 1990; Ross & Wu, 1995; Wang & Amato, 2000).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학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허용되는 직업이 저임의 단순 육체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김혜련, 1995),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아 이에 따른 기대와 권리의식이 높을 경우 적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수준이 실제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혼제기 여부

개인은 스트레스원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더 고통을 겪는다. 스트레스 상황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경우, 개인은 무력감을 느끼고 더 괴로워한다(Sweeney & Horwitz, 2001; Thoits, 1983). 반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더 잘 극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혼을 제기한 사람이 더 잘 적응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혼제기자는 이혼 과정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혼을 제기하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으로 더 잘 지낸다고 지적된다(Baum, 2003; Diedrick, 1991). 반면 이혼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이라는 원치 않은 생활의 변화로 인해 거부되어졌다는 느낌을 가지며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또한 관계를 완벽히 종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전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별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다(Baum, 2003; Spanier & Casto, 1979).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현숙, 김득성, 2000)에서는 이혼제기자라는 요인이 이혼 후 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전 배우자가 심각한 이혼사유를 제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혼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혼제기자라고 해서 이혼과정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서구에서와 달리 이혼제기자가 이혼 후 더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혼제기자가 전반적으로 이혼 후 더 잘 적응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혼제기자라는 요인이 실제 우리나라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자존감

기존의 이혼 후 적응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혼이 자존감의 저하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살펴보았다(한경혜, 1993a, 1993b; Diedrick, 199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존감을 개인적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스트레스 사건을 더 잘 극복하고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spinwall & Taylor, 1992; Whisman & Kwon, 1993).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진다(Reasoner, 1982; 박성욱, 신귀신, 박정욱, 2003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수와 종류, 개인이 문제에 대처해나가는 방법,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 동안의 탄력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혼 남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otten, 1999).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자존감은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4) 가정경제 만족도

이혼 후 개인이 지각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이혼 후 적응을 증대하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수준이 다르다면 이혼 후 적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혼 후 적응에는 객관적인 경제 사정보다는 주관적인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piro, 199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경제 사정에 초점을 두어 소득이나 취업 여부, 소득 욕구비와 같은 요인들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Booth & Amato, 1991; Kitson, 1992; Sweeney & Horwitz, 2001; Wang & Amato,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남녀가 지각하고 있는 가정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증대요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이혼에 대해 개인이 취하는 태도이다. 개인은 주어진 상황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그 상황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서 행동을 취한다(조병은, 2002).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 이론에 따르면 누적된 스트레스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과 함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의는 이후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McCubbin & Patterson, 198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혼 후 적응 수준은 개인이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mato, 2000). 실제로 이혼이 도덕적 실패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혼은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Wheaton, 1990). 또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이혼을 도덕적 실패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이혼 후 우울증에도 잘 빠지고, 덜 행복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ooth & Amato, 1991; Simon & Marcussen, 1999).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5. 대인관계 자원

1) 자녀유무

자녀의 존재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서구의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전반적으로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고 본다(Amato, 2000; Holden & Smock, 1991; Tschann et al., 1989).

그러나 자녀의 존재는 이혼자들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문현숙, 김득성, 2000).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자들에게 자녀는 살아갈 이유가 되며,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 준다(Kitson, 1982). 이혼자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 일상생활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Weiss, 1975, 한경혜, 1993a에서 재인용). 실제로 편모에게 자녀의 존재는 중요한 자원(김태현, 조희선, 1991)이 되며, 이혼 남녀는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옥선화, 성미애, 2004). 이혼한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혼 여성들은 자녀에게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 이혼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한다(김혜련, 1995).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존재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존재 자체가 이혼 남녀에게는 중요한 지지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녀의 존재가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성교제 여부

서구의 연구들에서 이성교제는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abes, 1997; Wang & Amato, 2000). 이혼자들에게 이혼 후 이성 파트너의 존재는 현재의 기분상태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Thabes, 1997), 만족할만한 친밀한 이성관계의 확립은 이혼 후 2년간 자아개념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도 있다(Hetherington et al., 1977, 문현숙, 김득성, 2000에서 재인용). 이혼 여성들은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혼 전 전 배우자와의 갈등적 관계로 인해 저하되었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원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성정현,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여부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사회적 지원은 이혼 남녀에게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키거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혼 후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문현숙, 김득성, 2000; 변화순, 1996; 성정현, 1998; 허정원, 옥선화, 1998; Tschann et al., 1989)에서 이혼 적응 과정 동안 사회적 지원이 이혼으로 인한 긴장효과를 감소시키고 이혼 이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Kitson, Mior와 Mason(1982, Miller et al., 199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이혼자들이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물질적 지원의 경우에는 이혼한 여성들의 적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Hughes, Good & Candell, 1993; Miller et al, 1998).

이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이혼 남녀에게 가족 외 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원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4)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개인은 사회적 과정에서 타자의 태도와 반응에 의해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한상욱, 1997).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에게 의미있는 타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의미있는 타자들의 기대와 요구는 개인의 행동이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 주변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 결정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경성, 2001).

이혼 후 적응에서도 이혼자들에게 의미있는 타자들이 그들의 이혼 사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김혜련(1995)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경험을 잘 이해 받지 못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정을 지지 받지 못한다.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이혼자의 우울감과 긴장, 소외감을 증가 시킴으로써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지지하고 받아들일 경우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자의 이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20, 30대 이혼 남성이 경험한 이혼 후 생활변화(거주지 이동 여부, 경제생활 악화, 건강 악화), 개인적 자원(교육수준, 이혼 제기 여부, 자존감, 가정경제 만족도, 이혼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자원(자녀유무, 이성 교제 여부, 사회적 지원,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20, 30대 이혼 여성이 경험한 이혼 후 생활변화(거주지 이동 여부, 경제생활 악화, 건강 악화), 개인적 자원(교육수준, 이혼 제기 여부, 자존감, 가정경제 만족도, 이혼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자원(자녀유무, 이성 교제 여부, 사회적 지원,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의 구성

1)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적응 척도는 Kitson(1982, 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Wang과 Amato(2000)가 개발한 이혼에 대한 만족도와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부터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2) 경제생활 악화

경제생활 악화는 경제생활의 변화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나빠졌다' 1점에서 '매우 좋아졌다' 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응답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생활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므로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를 '악화되었음'으로, '변함없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를 '악화되지 않았음'으로 이분변수화 하였다.

3) 건강 악화

건강 악화는 건강의 변화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나빠졌다' 1점에서 '매우 좋아졌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응답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므로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를 '악화되었음'으로, '변함없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를 '악화되지 않았음'으로 이분변수화 하였다.

4)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이훈진,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된다.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3번, 5번, 8번, 9번)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다.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1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5) 가정경제 만족도

가정경제 만족도 척도는 성미애, 옥선화(2002)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본 조사의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 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6)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상이한 배경의 이혼에 대한 동의정도를 묻는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심리·정서적 요인, 친족과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도구적 요인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얼마나 허용하는지를 묻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7)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척도는 McCubbin, Olson과 Larsen(1987)이 제작한 가족위기기에 대한 개인 평가 척도(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F-COPES)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경원, 옥선화, 1989; 박지원, 1985; 신기영, 1991)을 기초로 최연실(1996)이 구성한 척도를 본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이 가능한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풍부함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로 높게 나타났다.

8)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는 옥선화와 성미애(2004)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혼자에게 의미있는 타자가 되는 주위 사람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인정하는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는지, 이혼 결정을 받아들이는지, 재결합하기를 바라는지, 전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부정적으로 묻는 문항(3번, 4번, 5번)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5점에서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자의 이혼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1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이혼한 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이혼한 상태에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20, 30대 남녀이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9월 23일부터 2003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다년간 질문지 조사를 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들이 직접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조사원이 이혼 남녀를 면접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2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에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 변수들이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특히 개인적 자원과 대인관계 자원 각각이 이혼 후 생활변화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소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집 단	이혼 남성	이혼 여성
		빈도(%)	빈도(%)
연 령	20~29세	15(13.2)	22(19.6)
	30~39세	99(86.8)	90(80.4)
		114(100.0)	112(100.0)
직 업	전문·관리직	3(2.6)	5(4.5)
	사무직	49(43.0)	29(25.9)
	생산·기술직	20(17.5)	2(1.8)
	영업·서비스직	15(13.2)	44(39.3)
	자영업	27(23.7)	21(18.7)
	전업주부	.	4(3.6)
	무직	.	7(6.2)
		114(100.0)	112(100.0)
월 소득	소득없음	.	8(7.3)
	100만원 미만	.	1(0.9)
	100~200만원 미만	23(20.2)	59(53.6)
	200~300만원 미만	64(56.1)	34(30.9)
	300만원 이상	27(23.7)	8(7.3)
	114(100.0)	110(100.0)	
종 교	기독교	16(14.0)	34(30.4)
	천주교	4(3.5)	14(12.5)
	불교	11(9.7)	14(12.5)
	무교	83(72.8)	50(44.6)
		114(100.0)	112(100.0)
주거형태	자 가	39(34.2)	21(18.7)
	전 세	50(43.9)	73(65.2)
	월 세	7(6.1)	7(6.3)
	부모님집	18(15.8)	8(7.1)
	친척집	.	1(0.9)
	기타	.	2(1.8)
	114(100.0)	112(100.0)	
결혼지속기간	1년 미만	6(5.3)	5(4.5)
	1년~3년 미만	37(32.4)	32(28.6)
	3년~5년 미만	19(16.7)	9(8.0)
	5년~7년 미만	10(8.8)	14(12.5)
	7년~10년 미만	29(25.4)	28(25.0)
	10년 이상	13(11.4)	24(21.4)
		114(100.0)	112(100.0)
이혼후기간	6개월~1년 미만	23(20.2)	22(19.7)
	1년~2년 미만	48(42.1)	25(22.3)
	2년~3년 미만	18(15.8)	38(33.9)
	3년~5년 미만	25(21.9)	27(24.1)
		114(100.0)	112(100.0)

〈표 1〉 계속

특 성	집 단	이혼 남성	이혼 여성
		빈도(%)	빈도(%)
이혼형태	재판이혼	6(5.3)	17(15.2)
	협의이혼	107(93.8)	95(84.8)
	기 타	1(0.9)	.
		114(100.0)	112(100.0)
이혼당시 직업유무	유 무	111(97.4)	48(42.9)
		3(2.6)	64(57.1)
		114(100.0)	112(100.0)

떨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 는 SPSS for Window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및 대인관계 자원의 전반적 경향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최도점수범 위: 5-25점, 중간값: 15점)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은 평균 14.62점(표준편차: 2.88)으로서 중간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은 평균 15.48점(표준편차: 3.33)으로서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의 전반적 경향

성 별	평균(SD)	최도점수범위	중간값	t
이혼 남성 (N=114)	14.62(2.88)	5-25	15	2.08*
이혼 여성 (N=112)	15.48(3.33)			

그리고 이러한 이혼 후 적응 수준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여성이 이혼 남성에 비해 이혼 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8, p<.05$).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한 상태를 만족하게 생각하며 이혼 후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이재경, 2000; Diedrick, 1991; Hemstr m, 1996; Masheter, 1991; Zick, & Smith, 1991) 결과들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변화를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혼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67.5%가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생활 악화, 건강의 악화를 경험한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86.6%가 거주지 이동을, 53.6%가 경제생활의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악화를 경험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혼 후 생활변화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 이동과 경제생활 악화에서 이혼 남성과 여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후 거주지 이동($\chi^2=11.59, p<.01$)이나 경제생활의 악화($\chi^2=14.15, p<.001$)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3〉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생활변화의 전반적 경향

이혼 후 생활변화	구 분	이혼 남성(N=114)	이혼 여성(N=112)	χ^2
		빈도(%)	빈도(%)	
거주지 이동 여부	했음	77(67.5)	97(86.6)	11.59**
	안했음	37(32.5)	15(13.4)	
경제생활 악화	악화되었음	33(28.9)	60(53.6)	14.15***
	악화되지 않았음	81(71.1)	52(46.4)	
건강 악화	악화되었음	29(25.4)	36(32.1)	1.24
	악화되지 않았음	85(74.6)	76(67.9)	

20, 30대 이혼 남녀의 개인적 자원의 전반적 경향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육수준은 이혼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64.0%가 대졸이상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과반수인 62.5%는 고졸이하였다. 교육수준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남성의 교육수준이 이혼 여성에 비해 높았다($\chi^2=15.92, p<.001$).

이혼제기는 남녀 모두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이혼을 제기한 경우가 각각 69.3%, 87.5%로, 전 배우자나 그 외의 사람들이 이혼을 제기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이혼을 제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chi^2=11.02, p<.01$).

자존감은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이었으며, 남

녀간에 차이도 없었다. 이에 비해 가정경제 만족도는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수준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이혼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t=2.52, p<.05$).

이혼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20, 30대 이혼 여성이 이혼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서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4, p<.01$).

마지막으로 20, 30대 이혼 남녀의 대인관계 자원의 전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이혼 남성의 71.9%, 여성의 70.5%는 자녀가 있었으며, 남성의 73.6%, 여성의 85.7%는 이성교제를 하

<표 4> 20, 30대 이혼 남녀의 개인적 자원의 전반적 경향

	구 분	이혼 남성(N=114)	이혼 여성(N=112)	χ^2
		빈도(%)	빈도(%)	
교육수준	고졸이하	41(36.0)	70(62.5)	15.92***
	대졸이상	73(64.0)	42(37.5)	
이혼제기 여부	본인+부부가 함께	79(69.3)	98(87.5)	11.02**
	그 외	35(30.7)	14(12.5)	
자 존 감	점수범위(중간값)	이혼 남성(N=114)	이혼 여성(N=112)	t
		평균(SD)	평균(SD)	
자 존 감	9-45(27)	28.11(3.56)	28.23(3.38)	-26
가정경제만족도	5-25(15)	14.05(2.79)	12.93(3.84)	2.52*
이혼에 대한 태도	10-50(30)	35.73(4.65)	37.52(4.82)	-2.84**

<표 5> 20, 30대 이혼 남녀의 대인관계 자원의 전반적 경향

	구 분	이혼 남성(N=114)	이혼 여성(N=112)	χ^2
		빈도(%)	빈도(%)	
자녀유무	유	82(71.9)	79(70.5)	.05
	무	32(28.1)	33(29.5)	
이성교제 여부	하고 있음	27(23.7)	16(14.3)	3.24
	하고 있지 않음	87(73.6)	96(85.7)	
사회적 지원	점수범위(중간값)	이혼 남성(N=114)	이혼 여성(N=112)	t
		평균(SD)	평균(SD)	
사회적 지원	9-45(27)	25.68(5.14)	26.81(5.20)	-1.65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5-25(15)	15.93(2.28)	16.99(2.78)	-3.13**

고 있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은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혼 남녀는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타자들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이혼 여성이 남성보다 의미있는 타자들이 자신의 이혼을 더 수용한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t=-3.13, p<.01$).

이처럼 전반적으로 이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이후에 더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이혼 후 생활 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 중 일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혼 후 생활변화 중 거주지 이동이나 경제생활의 악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 개인적 자원 중 교육수준과 가정경제 만족도는 이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이혼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고,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인관계 자원 중에서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만 성차가 나타나 이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의미있는 타자들이 자신의 이혼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이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는 이혼 후 생활변화 중 건강의 악화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이혼 후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낮았다.

<표 6>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이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

(N=114)

관 련 변 수	이혼 후 적응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이혼 후 생활변화						
거주지 이동 여부(했음=1)	-.03	-.01	.04	.01	-.14	-.02
경제생활 악화(악화=1)	-.81	-.13	-.00	.00	-.41	-.06
건강 악화(악화=1)	-1.87	-.28**	-1.70	-.26**	-1.21	-.19*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대졸이상=1)			-.12	-.02	.10	.02
이혼제기 여부(본인+부부가 함께=1)			.00	.00	.21	.03
자존감			.11	.14	.03	.04
가정경제 만족도			.35	.34***	.36	.35***
이혼에 대한 태도			-.04	-.07	-.03	-.04
대인관계 자원						
자녀유무(유=1)					.96	.15
이성교제 여부(하고 있음=1)					.69	.10
사회적 지원					.17	.31***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24	.19*
상 수	15.35		8.60		.71	
R ²	.12**		.25***		.39***	
R ² 변화량			.13**		.14***	

* $p<.05$ ** $p<.01$ *** $p<.001$

둘째, 2단계에서 개인적 자원이 투입된 이후에도 건강 악화는 여전히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낮았다. 개인적 자원 중에서는 가정경제 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혼 남성의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3단계에서 대인관계 자원이 투입되면서 건강의 악화가 20, 30대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었고, 2단계에서 유의한 변수로 드러난 가정경제 만족도 또한 여전히 이혼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인관계 지원 중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 30대 이혼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 남성의 경우 이혼 후 생활변화 중 건강의 악화가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악화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개인적 자원과 대인관계 자원이 투입된 이후에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었다.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비교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혼 과정과 이후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인성 스트레스 및 불안 등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원인들에 의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 자원과 대인관계 자원 중에서는 가정경제 만족도, 사회적 지원,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만족도는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이혼 후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한경혜, 1993b; Shapiro, 1996; Wang &

Amato, 2000)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이혼 이후 수입의 감소라는 경제적 요인이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예측원 중 하나였다는 Tschann 등(1989)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현재 가정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남성의 이혼 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 자원 중 사회적 지원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남성들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원이 풍부할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결과는 이혼 적응 과정 동안 사회적 지원이 이혼으로 인한 긴장 효과를 감소시키고 이혼 이후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변화순, 1996; Tschann et al., 1989)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의미있는 타자들이 이혼 남성의 이혼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이혼 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혼자에게 의미있는 타자일 수 있는 부모의 태도가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한경혜(1993b)의 연구 결과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한경혜(1993b)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이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이혼 후 생활변화는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건강 악화가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생활의 악화, 거주지의 이동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이혼 후 건강이 악화된 경우, 경제생활이 악화된 경우,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낮았다.

둘째, 2단계에서 개인적 자원이 투입되면서 1단계에서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주

<표 7>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이 20, 3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 (N=112)

관 련 변 수	이혼 후 적응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이혼 후 생활변화						
거주지 이동 여부(했음=1)	-2.17	-.22**	-1.03	-.11	-.66	-.07
경제생활 악화(악화=1)	-1.68	-.25**	-1.20	-.18*	-1.30	-.20*
건강 악화(악화=1)	-2.26	-.32***	-1.34	-.19*	-1.14	-.16*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대졸이상=1)			.22	.03	.31	.05
이혼제기 여부(본인+부부가 함께=1)			1.52	.15*	2.48	.15*
자존감			-.06	-.06	-.08	-.09
가정경제 만족도			.38	.44***	.35	.40***
이혼에 대한 태도			.23	.33***	.22	.32***
대인관계 자원						
자녀유무(유=1)					.61	.09
이성교제 여부(하고 있음=1)					.00	.00
사회적 지원					.07	.10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					.13	.11
상수	18.99		4.37		.95	
R ²	.29***		.54***		.57***	
R ² 변화량			.25***		.03	

* p<.05 ** p<.01 *** p<.001

지 이동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의 악화와 경제생활 악화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었다. 개인적 자원 중에서 가정경제 만족도가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제기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이혼 여성의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지며, 이혼제기를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았다.

셋째, 3단계에서 투입된 대인관계 자원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이혼 여성의 경우 건강 악화, 경제생활의 악화, 거주지의 이동과 같은 이혼 후 생활변화가 모두 이혼 후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 이동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개인적 자원에 의해 독립적인 영향력이 소멸되었다. 이혼 여성에게 건강의 악화가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혼 남성에서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비교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혼 과정과 이후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인성 스트레스와 불안 등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원인들에 의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건강의 악화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건강이 악화될 경우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제약을 받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는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련, 1995).

개인적 자원 중에서는 가정경제 만족도,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제기 여부가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만족도는 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생활 악화가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결과와 함께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경제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성정현, 1998; 한경혜, 1993c; Holden & Smock, 1991; Shapiro, 1996; Wang & Amato, 2000) 결과를 지지한다. 이혼 후 여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이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혼 이후의 실제적인 삶을 규제, 통제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다. 이처럼 이혼 여성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정경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는 이혼 후 경제생활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Booth & Amato, 1991; Simon & Marcussen,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이혼을 제기한 경우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았는데, 이 또한 이혼제기자는 이혼 과정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혼을 제기하지 않는 배우자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 잘 지낸다고 한 기존의 연구(Baum, 2003; Diedrick, 1991)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 자원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여성들에게 대인관계 자원은 자원인 동시에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 여성들은 이혼 후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경험하므로(박부진, 2000; 이재경, 2000; 한경혜, 1993c), 그들에게 타인들과의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인관계 자원, 특히 사회적 지원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인 도움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경제적인 형태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므로 가정경제 만족도를 통해 이혼 후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이혼-스트레스-적응 관점에 기초하여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으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이혼 후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 30대 이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 후 더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결혼생활의 문제에 더 민감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Kurz, 1995; 이재경, 2000에서 재인용),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태에 만족하며 이혼 후 더 잘 적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가정경제 만족도와 건강의 악화는 20,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하다. 20,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경제 만족도이다. 즉, 이혼 남녀 모두에게 현재 가정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은 이혼 후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건강의 악화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건강의 악화라는 요인에 비교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혼 과정과 이후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인성 스트

레스와 불안 등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원인들에 의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이혼 후 적응 수준을 낮춘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혼 여성들은 건강이 악화될 경우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제약을 받으므로 이혼 여성에게 건강의 악화는 이혼 후 적응을 어렵게 한다.

셋째, 20,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다르다. 가정경제 만족도와 건강의 악화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대인관계 자원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악화라는 이혼 후 생활변화, 자신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이혼제기자와 같은 개인적 자원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생활의 악화가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여성들에게는 이혼 이후의 실제적인 삶을 규제, 통제하는 주요 요인이 경제적인 문제(성정현, 1998)라는 점과 관련시켜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자원이,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원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사회적 맥락과 관련지어 볼 때, 이혼자에 대한 공적인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이혼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김혜련, 1995; 박부진, 2000; 이재경, 2000; 한경혜, 1993b) 상황에서 이혼 여성들에게 대인관계 자원은 이혼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이나 낙인 때문에 자원인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로부터의 자원이 풍부하다(성정현, 1999). 그러나 이 경우 풍부한 대인관계 자원은 오

히려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켜 결국 이혼 후 적응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자원이 꼭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혼 남성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보다는 이혼 후의 정서적인 불안이나 일상생활의 유지, 자녀 양육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변화순, 1995; 이재경, 2000). 따라서 이혼 남성에게 사회적 지원이나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대인관계의 자원은 심리적인 부담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며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성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과 가족생활교육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가 가정경제 만족도였으며,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경제생활의 악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은 20, 30대 이혼 남녀에게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이혼 후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혼 남성과 여성이 경제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역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육비에 관한 것이다. 가족역할과 관련해, 가정에서 소비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대체로 남성이었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혼 후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은 이혼 여성은 이혼 전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가 절반이 넘으며, 남성에 비해 직업과 소득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 남성들을 위해서는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혼 여성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지식 및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혼 남성과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정부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지급 감독 및 지도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20, 30대 이혼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나 의미있는 타자들의 태도와 같은 대인관계 자원에 따라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대인관계로부터의 지원을 보완해줌으로써 이혼 후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남성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혼 남성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남성들에게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므로, 이혼 남성의 의미있는 타자들이 될 수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여 이혼자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현대인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갈수록 막강해지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한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편견을 버리고 이혼 남성들의 이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 30대 이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적응에 이혼에 대한 태도나 이혼시기 여부와 같은 개인적 자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혼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이혼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뚜렷한

이혼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조적인 성격의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이 혼자서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며, 이에 적합한 상담기관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혼 여성들에게는 이혼을 본인이 제기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했는데, 이것은 이혼 전에 이혼을 충분히 준비하고 맞았는지와 관련된다. 이는 이혼 이후 조절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따라서 이혼 전에 이혼에 대해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 전에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 전 숙려 기간 제도가 확립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는 이혼 여성들을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구조의 장점을 인정하며, 협조적인 개입노력을 하는 등 실천가들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스트레스원으로 이혼 후 생활변화를 살펴봐왔는데, 이혼 전 요인들이나 이혼 과정 요인들도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혼 전 요인들과 이혼 과정 요인들을 포함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20,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혼의 양상이나 이혼 후 적응 과정은 연령 집단에 따라, 생애주기 중 어느 단계에 있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나 황혼기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개인이 위치한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혼 후 기간의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으나, 이혼 후 기간의 차이가 큰 대상을 선정하여 이혼 후 기간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유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권 소재, 자녀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성별 일치도 등에 따라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유무 뿐만 아니라 자녀의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과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혼 남녀의 삶에 보다 더 근접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특히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성별로 이혼 후 적응전략을 달리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해 보았으므로 복지정책과 가족생활 교육 등 실천적인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태현,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간의 가족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 김혜련(1995).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을 추이와 의미. 한국인구학, 23(1), 5-29.
- 박부진(2000).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9, 84-101.
- 박성욱, 신귀순, 박정욱(2003). 결혼가정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03-416.
-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성미애, 옥선화(2002).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2.
-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여름), 53-78.
- 성정현(1999).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 93-116.
- 옥선화, 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41-160.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훈진, 원호택(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조병은(200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이론. 서울: 교문사. 31-63.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1993a). 이혼과 부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57-78.
- 한경혜(1993b).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79-104.
- 한경혜(1993c). 이혼 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4), 127-150.
-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내창(1998).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7, 169-187.
- 한상욱(1997). 중요한 타자가 중등학생의 도덕적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정원, 옥선화(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 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생활과학연구, 23, 37-48.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spinwall, I.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aum, N. (2003). Divorce process variables and the co-parental relationship and parental role fulfillment of divorced parents. *Family Process*, 42, 117-131.
- Booth, A. & Amato, P.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Cohen, O. & Savaya, R. (2003). Adjustment to divorce: A preliminary study among Muslim Arab citizens of Israel. *Family Process*, 42, 269-290.
- Cotten, S. R. (1999).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revisited: Examining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48, 225-233.
- Crane, D. R., Soderquist, J. N., & Gardner, M. D.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steps toward divor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99-105.
- DeGarmo, D. S. & Kitson, G. C. (1996). Identity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83-997.
- Diedrick, P. (1991). Gender differences in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4, 33-45.
- Fowers, B. J. (1991). His and her marriage: A multivariate study of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Sex Roles*, 24, 209-221.
- Hemström, Ö. (1996). Is marriage dissolution linked to differences in mortality risks fo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66-378.
- Holden, K. C. & Smock, P. J. (1991).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solution: Why do women bear a dispro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51-78.
- Hu, Y. & Goldman, N. (1990). Mortality differentials by marital statu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emography*, 27, 233-245.
- Hughes, R., Jr., Good, E. S., & Candell, K.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divorc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9, 37-56.
- Kitson, G. C. (1992). *Portrait of divorce: Adjustment to marital breakdown*. NY: Guilford Press.
- Kits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3-924.
- Kitson, G. C. & Raschke, H. J.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7.
- Lillard, L. A. & Waite, L. J. (1995). Til death do us part: Marital disruption and mortality. *The*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131-1156.
- Magdol, L. (2002). Is moving gendered? The effects of residential mobilit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and women. *Sex Roles*, 47, 553-560.
- Magura, M. & Shapiro, E. (1988). Alcohol consumption and divorce: Which causes which?. *Journal of Divorce*, 12, 127-136.
- Masheter, C. (1991). Postdivorce Relationships between Ex-Spouses: The Roles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3-110.
- McCubbin, H. I. & Patterson J. (1982).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H. I. McCubbin, A. E. Cauble, & J. M.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p. 26-47).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 Mcmanus, P. A. & Diprete, T. A. (2001). Losers and winners: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separation and divorce for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46-268.
- Miller, N. B., Smerglia, V. L., Gaudet, D. S., & Kitson, G. C. (1998).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the distress of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9, 181-203.
- Peterson, R. R. (1996).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528-536.
- Ross, C. E. & Wu, C. (1995).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719-745.
- Shapiro, A. D. (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86-203.
- Simon, R. W. & Marcussen, K. (1999).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11-125.
- Smock, P. J. (1993).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young women over the past two decade. *Demography*, 30, 353-371.
- Smock, P. J. (1994). Gender and the short-run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Social Forces*, 73, 243-262.
- Sweeney, M. M. & Horwitz, A. V. (2001). Infidelity, initiation, and the emotional climate of divorce: Are ther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295-309.
- Thabes, V. (1997). A survey analysis of women's long-term,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7, 163-175.
- Thoits, P. A.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Kaplan, H. B.(ed.),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 33-103). NY: Academic.
- Tschann, J. M., Johnston, J. R., & Wallerstein, J. S. (1989). Resources, stressors, and attachment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after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33-1046.
- Wang, H. & Amato, P. 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9.
- Wheaton, B. (1990). Life transitions, role histories, and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09-223.
- Whisman, M. A. & Kwon, P. (1993). Life stress and dysphoria: The role of self esteem and hop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54-1060.
- Zick, C. D. & Smith, K. R. (1991). Marital transition, poverty, and gender differences in mort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27-336.

(2004년 10월 27일 접수, 2005년 1월 13일 채택)